# 우리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新 불교사자성어

㊻ 본래면목(本來面目)

'본래면목(本來面目)' 은 선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어(禪語)이다. 글자 그대로는 '본 모습', '본 얼굴' 정도지만, 그 심의(深意)는 '너는 누구냐?', '너의 본성' 또는 '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고 묻는 말과도 같다.

본래면목은 '본래 가지고 태어난 모습', '전혀 꾸미지 않은 모습', '순진무구한 모습', 혹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모습' 등을 말한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철학적으로는 '본래적 자기', '진정한 자기',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를 한글로 옮기는 데는 많은 고충이 따른다. 특히 본래면목과 같이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언어들의 경우 다양한 표현을 이중 삼중으로 동원해야 한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한자는 고작해야 네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말로는 3배에서 4배 이상 언어를 동원해야 한다. 이것은 표의문자인 한자와 표음문자인 한글이 갖고 있는 언어의 특성 혹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화장과 성형기술이 뛰어나다. 이 분야에서는 적어도 세계적 수준인데, 예술적, 고혹적인 반면 '생얼', '민낯', '민얼굴' 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민낯', '생얼(生얼)' 이 바로 '본래 얼굴', '본래면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10년 전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화장실 길목에서 생얼을 보고는 순간 모르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뻔했다.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보긴 봤는데' 하고는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평소 얼굴과 비슷하기는 해도 이미지는 전혀 다른 분이었다. 화장의 효과가 그렇게 기막힌 줄은 처음 알았다. 그 뒤로 나는 나의 집사람에게도 부지런히 멋있게 화장을 하라고 권한다.

본래면목은 '너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는 말인데 이는 곧 '부처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불교의 진리인가' 라고 묻는 정형구로서 '어떤 것이 깨달음의 세계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묻는 말과 같다. 의미상에서는 '본성', '자성(自性)', '불성', '법성' 등과 동의어이고, 본지풍광(本地風光)이나 자기본분(自己本分)과도 같은 말이다. 본성이란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淸淨心)을 가리킨다. 육조단경에서는 이러한 청정심이 곧 불성이라고 한다.

'본래면목' 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화두가 있다.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 으로,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父母未生前)의 모습', '나' 라는 형체가 만들어지기 이전 모습으로서 곧 '너의 본질' 을 가리킨다. 분별의식이 생기기 이전인 '근원', '본질' 등을 뜻한다.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이란 '분별 이전',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 을, 그리고 본래면목은 '진실한 나의 모습' 또는 '본래적 자기(我)' 를 뜻한다. 두 어휘가 결합된 말이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으로서 근원적인 자기에 대한 강한 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너)의 본모습은 무엇인가?', '나(너)의 실체는 무엇이냐?' 또는 '나(너)는 누구냐?' 고 묻는 말과도 같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것(自問)이다. 스스로 자문과 반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본래면목' 은 '너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이냐?', '너의 참모습은 무엇이냐?' 또는 더 넓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我)란 무엇인가?', '무엇이 선의 진리인가?', '무엇이 부처인가?'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끝〉

〈윤창화 민족사 대표〉

# 안목 있다면 언구서 달리지 말아야



격절록 강설

㊻ 제17칙 덕산작마(德山作麼) 2

[評唱 2]

至來日山出浴 其僧過茶與山 山撫僧背一下 這僧孟八郎 却道 "這老漢方始瞥地" 直饒浪擊千尋 爭奈龍王不顧. 雪竇是作家鉗鎚 大凡拈古 須平將秤稱斗量了然後批判. 他雖恁麼拈 不許人恁麼會. 雪竇拈道 "精金百煉 須要本分鉗鎚"

다음날, 덕산이 목욕하고 나오는데 그 스님이 덕산에게 차를 건네주자 덕산이 스님의 등을 한 번 어루만졌다. 이 스님은 맹팔랑이라 도리어 말하기를 "이 노장이 이제야 막 눈치를 챘다"고 했는데, 설사 물결을 천 번을 치더라도 용왕이 돌아보지 않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설두에게는 작가의 집게와 쇠망치(作家鉗鎚, 작가의 솜씨)가 있었으니, 무릇 고칙에 염(拈古)을 할 때에는 모름지기 저울(秤)로 달아보고 말(斗)로 재보고 그런 다음 비판을 해야 한다. 그는 비록 이렇게 염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설두가 염하기를 "쇠를 충분히 단련하려면 모름지기 본분의 집게와 쇠망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只如 德山前頭也休去 後頭也休去 未審作麼生是精金百煉. 德山真是惡手脚 見這僧不是受鉗鎚底人. 所以休去. 雪竇云 "德山既以己方人 這僧還同受屈" 德山如戴角大虫. 何故 却以己方人. 且道此意作麼生 若是具眼者 必不可言句上走.

그건 그렇고, 덕산이 앞에서도 쉬고 뒤에서도 쉬었는데, 어떤 것이 쇠를 충분히 단련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덕산에게는 정말로 험악한 수단이 있었지만, 이 스님이 집게와 쇠망치의 단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덕산이) 쉬었던(=그만 두었던) 것이다.

설두가 말하기를 "덕산은 자기 자신에 비추어 남을 평가했으니, 이 스님도 함께 굴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덕산은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비추어 남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자, 말해보라! 이 뜻이 무엇인가? 만약 안목을 갖춘 자라면 반드시 언구 상에서 달리지 말아야 한다.

雪竇以拄杖一畫云 "適來公案且置" 他為什麼却拈放一邊 却道 "從上諸聖向什麼處去也" 大衆擬議 一時打趁 到這裏合作麼生商量. 看 諸人皮下還有血麼.

설두가 주장자로 한 획을 그으며 말하기를 "좀 전에 공안은 놔두고"라고 했는데, 그는 어째서 도리어 염하는 것을 한쪽으로 내놓고, (또)다시 말하기를 "모든 옛 성인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고, 대중이 머뭇거리자 한꺼번에 쳐서 아버렸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따져야 맞겠는가?

보라! 여러분은 가죽아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끝〉

---

일 년 동안 〈격절록〉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100칙 모두를 소개하지 못한 불찰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100칙 모두를 소개하는 책자로 그간의 다하지 못함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그 어느 해보다 남녀 · 노소 · 남북 · 동서 · 빈부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감싸주고 등 두드려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설거사의 팔죽시(八竹詩)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대로 저런대로 되어가는 대로 /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나오는 대로 /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대로
손님 맞는 것은 집안 형편대로 / 시정의 사고파는 것은 세월대로
세상만사 내 맘 같지 않으니,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하며 세상 따라 세월을 보낸다."

(此竹彼竹化去竹 風打之竹浪打竹 粥粥飯飯生此竹 是是非非看彼竹
賓客接待家勢竹 市政買賣歲月竹 萬事不如吾心竹 然然然世過然竹)

덕우 강승욱 법사 합장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㊻ 이해의 길 26

# 대승에서 불상의 의미

요즘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라호르 박물관에 모셔진 붓다의 고행상 때문이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은 한국인의 심성을 닮아 포근하고 넉넉한 모습이지만, 당시 붓다는 살집은 별로 없고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고행상은 붓다의 모습을 사실에 가깝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포교에 전념했던 그의 고단한 삶이 느껴진다. 붓다의 고행상이 한국에서 전시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불상은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진리를 깨친 여래의 형상은 표현할 수 없다(如來像不表現)는 인도의 전통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래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인도의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다. 그런데 여래는 진리를 깨치고 생사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처럼 존재의 세계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표현은 존재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붓다의 입멸 후 조성된 불탑에 그의 형상 대신 발이나 법륜(法輪), 보리수, 우산 등이 조각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싯다르타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모습이나 출가를 위해 궁을 몰래 빠져나오는 장면은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여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승불교에 이르러 불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부파불교는 법(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교다. 부파불교를 '법(法)에 대한 연구' 라는 뜻을 지닌 '아비달마(Abhidharma)' 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각 부파마다 경(經)에 대한 논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 가운데 법이 중심이 되었다. 물론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각 부파는 법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들에게는 법이 아니라 붓다가 중심이 되는 강력한 상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상이었다.

불상은 지금의 파키스탄에 속한 간다라 지방과 중인도 서북부에 위치한 마투라 지방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다. 대략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조성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불상의 양식은 매우 다르다. 간다라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상도 서구인, 특히 그리스인을 많이 닮았다. 간다라 불상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을 떠올릴 정도로 서구적이라면, 마투라 불상은 전형적인 인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마투라는 당시 인도의 정치와 군사,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파키스탄에서는 간다라가, 인도에서는 마투라가 최초의 불상 조성지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불상이 만들어질 당시 파키스탄은 인도에 속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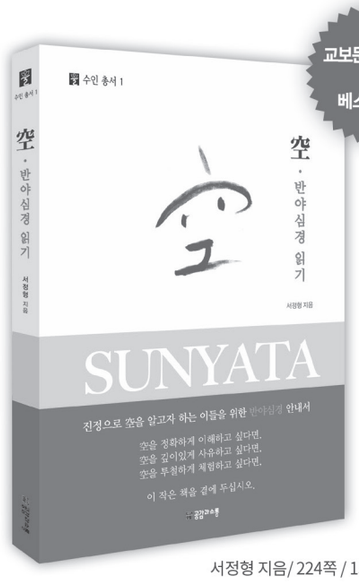
마투라 지역에서 만든 불상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 여래상인데도 불구하고 보살상이라고 새겨진 작품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래의 형상은 표현할 수 없다는 전통 때문에 여래상이라는 이름을 자신 있게 붙이지 못했던 것이다. 마투라는 그만큼 전통이 지배하는 지역이었다. 반면 간다라는 인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서구와의 교류가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불상을 제작하였고 여래상이라는 이름도 쓸 수 있었다. 문화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승불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상은 신앙의 상징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곧 법 중심에서 붓다 중심의 불교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대중들은 오래 전 열반에 들었던 붓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느꼈을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불상 앞에서 하소연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렇게 불상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진정으로 空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반야심경 안내서

空 · 반야심경 읽기




20년 간 불교철학을 강의해 온 불교학자의 空에 관한 담론!
空을 통해 불교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서정형 지음/ 224쪽 / 13,000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空과 불교의 사상을 집약했다. 불교의 핵심인 空사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반야심경의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오늘날의 언어로 쉽게 풀어냈다. - 한국일보

이 책은 空사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근본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반야심경〉의 행간을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최고의 진리인 '공'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준다. - 불교신문

저자 서정형 –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중국 화엄철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 이 책의 내용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자의 이메일(naruppe@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소통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41 M빌딩 302-3호 | 전화 031-942-9472



문화재지정 대혜보각 선사서(서장)
경상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지정기념 무차천도대법회

2019 기해년 송년법회 및
무차천도대재

◈ 송년법회 ◈
2019년 12월 31일(화) 밤 9시

◈ 천 도 일 ◈
2020년 1월 1일(수) 10시 30분

* 동참하는 모든 분께(영가 접수시)
무보시 영가천도 봉행

낙동강 무심사
010-9898-0108





독거노인 돕기 음악회

불자님과 스님들의 음성포교를 통하여
소외계층을 돕는 음악회에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8시까지)
◆ 장소 : 송해보존회거리 국일관 앞
스타불자노래교실
◆ 문의 : 010-4233-3459
● 주지스님 신도, 간부(다과회) 가능

도움주실 계좌
농협 356-0180-4553-23 (예금주 : 김영대)

어려운 이웃 돕기(실천운동본부)
탄음 합장